실습 6

Neural Network를 사용한 문화재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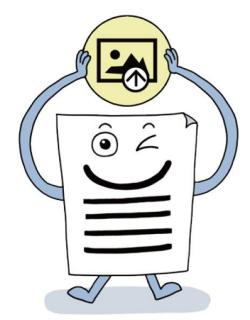
[Lecture] Dr. HeeSuk Kim

6

우리 문화재 넌 얼마나 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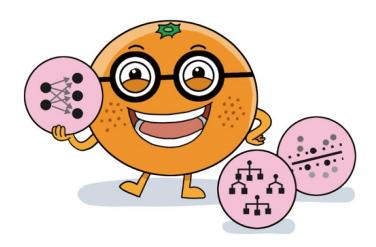
인공 신경망을 사용하여 우리 문화재를 분류해 보자. 데이터 종류:

비정형 데이터



사용하는 모델:

Neural Network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는 멋진 문화재, 그 중에서도 건축물들이 많다.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곳을 다니지 못하게 되어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건축물 문화재 즉, 탑, 성곽, 가옥 궁궐, 사찰 등의 명소 사진을 통해 어떤 문화재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아울러 문화재에 대한 뒷이야기도 알아보며 우리 문화재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

국가 지정 데이터인 Al Hub를 이용하여 멋진 우리 유적물을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자.





데이터 다운로드 링크

https://bit.ly/30sSOVZ

[문화재 이미지 데이터 세트_테스트] [문화재 이미지 데이터 세트_훈련]

1 외부 데이터 다운로드

국가 공개 데이터 허브인 AI Hub(https://aihub.or.kr)에서 우리나라 문화재 데이터 다운로드 가능

① Al Hub 사이트(aihub.or.kr) 접속하기



② 회원 가입하기

• 이메일 주소,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만 있으면 가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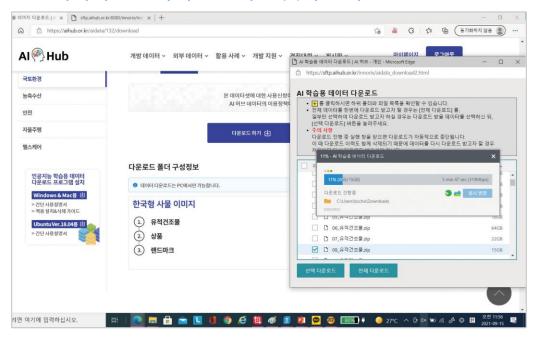
③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나누기



- 개방형 데이터 → 국토환경 →
 한국형 사물 이미지를 검색
- 다운로드 탭 눌러서 데이터 다 운로드

④ 필요한 이미지 다운로드하기

• 원본 데이터의 양은 엄청나게 많고 전체 용량이 4Tera Byte가 넘는다. 따라서 필요한 이미지만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⑤ 실습 데이터 선택하기

- 이 실습에서는 AI Hub가 제공하는 우리나라 문화재 모두를 사용하지 않음.
- Al Hub 문화재 데이터 압축 파일(유적건조물zip) 중 1,5번에 있는 4 가지 문화재에 대하여 이미지 인식 실시
 - ① 건원릉 정자각
 - ② 경원릉
 - ③ 아차산삼층석탑
 - ④ 현등사삼층석탑

⑥ 문화재 이미지 데이터 폴더에 저장하기

- Al Hub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는 이미지 원본(.jpg)과 함께 JSON 데이터(.json)로 라벨링이 되어 있음.
- 따라서 이 데이터를 Orange3에서 사용하려면 문화재 이미지 라벨을 폴더명으로 지정하고 그 폴더에 이미지를 넣어 주는 작업 필요



위의 과정도 데이터 전처리에 속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므로 여기서는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데이터 셋을 활용한다.

JSON은 데이터 공유를 목적으로 개발된 특수한 파일 형식으로 'key:value'구조를 가진다.

⑦ 훈련 데이터 준비하기

• 각 문화재의 이미지의 개수가 각각 다르지만 여기서는 4 가지 문화재의 학습 데이터를 각각 60개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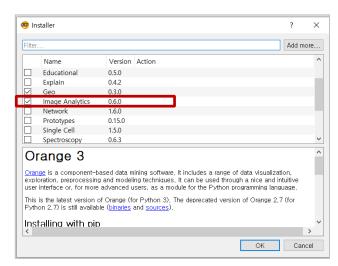
2 데이터 불러오기

① Image Analytics 카테고리 추가하기

• Image 파일을 다루기 위해 Image Analytics를 추가

• Orange3 메뉴의 [Options] → [Add-ons...] → Image Analytics를 선택하여 추

가로 설치



② 데이터 불러오기

• Image Analytics 카테고리에서 [Import Images] 위젯을 캔버스로 가져와서 문화재 이미지데이터 업로드



- Import한 이미지가 제대로 업로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Image Viewer] 위젯을 추가해서 [Import Images] 위젯과 연결
- [그림 6-1]처럼 연결되면 [Image Viewer]를 더블 클릭해서 Import한 이미지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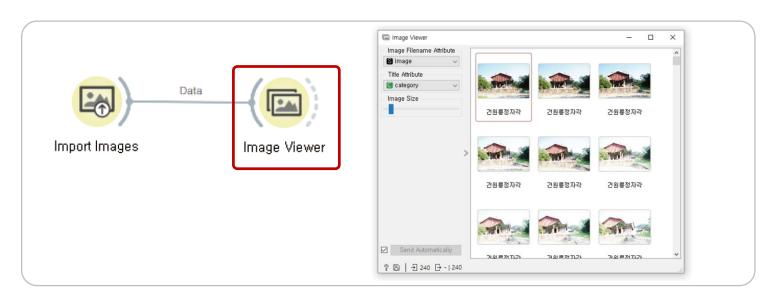


그림 6-1 데이터 이미지로 확인하기

3 데이터 전처리하기

① 이미지 데이터 임베딩하기

-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Image Embedding] 위젯 이용
- [Import Images]와 [Image Embedding]을 연결하면, 이미지 임베딩이 자동으로 진행됨.



② 이미지 데이터 feature 정보 확인하기

• [그림 6-2]와 같이 [Image Embedding] 위젯의 점선을 끌어서 빈 공간에 놓으면, 작은 창이 뜨는데 거기서 [Data Table]을 클릭한다. ([Data Table] 위젯을 가져다 붙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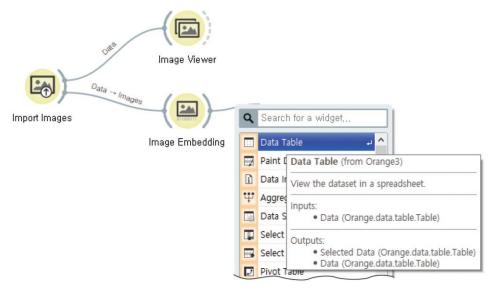


그림 6-2 Data Table 위젯 추가하기

어떤 모델을 선택하고 학습시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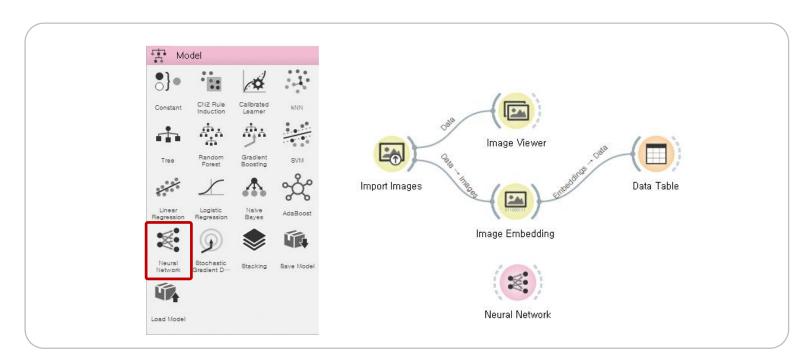
1 테스트 데이터 준비하기

• 네 가지 문화재 테스트 데이터를 각각 10개로 구성



2 학습 모델 선택하기

문화재 분류에서는 Model 카테고리의 [Neural Network] 사용



3 학습시키기

[Neural Network] 위젯을 사용해서 문화재 이미지를 분류해 보자.

Orange3는 연결선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위젯이 실행된다. [그림 6-3]에서도 별도의 실행 명령을 주지 않아도 모델이 훈련 데이터를 학습시킨다.

[Neural Network] 위젯을 더블 클릭하면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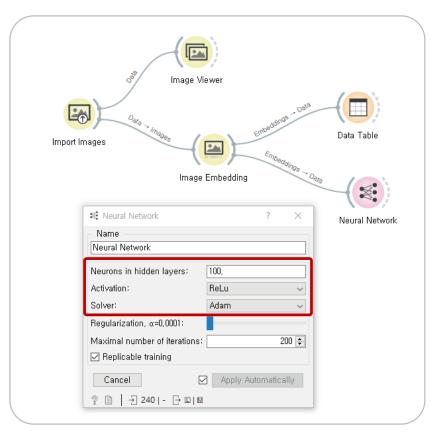


그림 6-3 [Neural Network] 위젯의 매개 변수 옵션

AI랑 친해지기

[Neural Network] 위젯의 매개 변수 옵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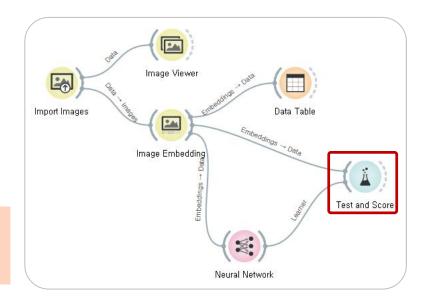
Neurons in hidden layers	Layer 수와 Layer 안의 Neuron의 수를 정의하는 부분이다. 위 옵션 창의 '100,'의 의미는 Layer는 1개이고 그 Layer의 Neuron 수는 100개라는 의미이다. 만약 3개 Layer를 가지고 각각 50, 100, 50개의 Neuron 수를 가진다면 '50,' '100,' '50,'으로 지정해 주면 된다.
Activation	활성화 함수를 지정해 준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가 ReLU 이므로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고, Identity, tanh, Logistics 등을 사용할 수 있다.
Solver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optimizer이다. 옵티마이저 (optimizer)는 현재 Adam 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여기서는 SGD와 L-BFGS-B를 사용할 수 있다.

4 모델의 성능을 확인해 보자!

1 학습 결과 확인하기

Evaluate 카테고리의 [Test and Score] 위젯을 가져온 후,
 모델인 [Neural Network] 위젯과 [Image Embedding] 위젯에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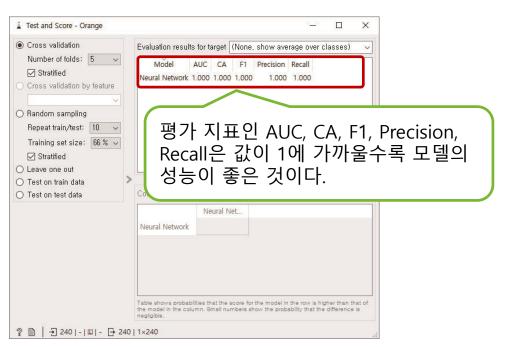
이미지 분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 지표(evaluation metrics)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모델 성능 확인하기

• [Test and Score] 위젯을 더블 클릭하여 모델의 성능 확인





2 성능 결과 확인하기

① 테스트 데이터 불러오기

• 새로운 [Import Images] 위젯을 캔버스로 가져와서 [그림 6-4]와 같이 40개의 문화재 테스트 데이터 불러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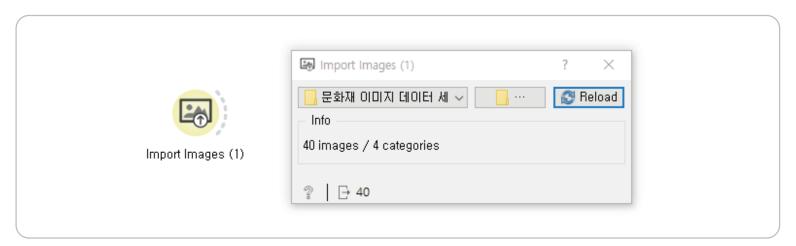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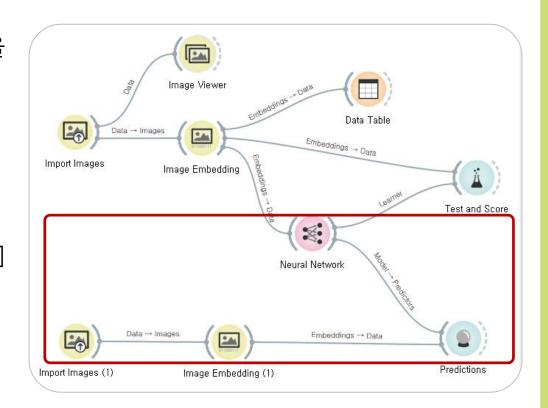


그림 6-4 문화재 테스트 데이터 가져오기

② 테스트 데이터 임베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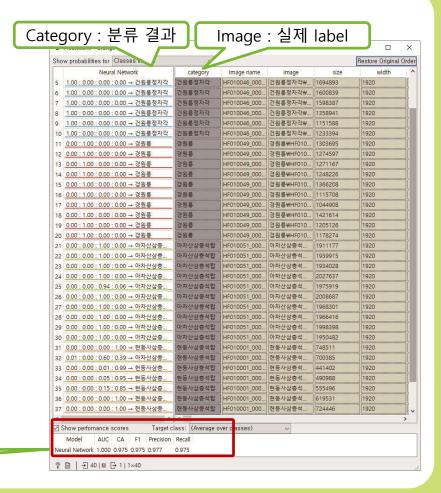
- [Image Embedding(1)] 위젯을 [Import Images(1)]에 연결 하여 테스트 데이터 임베딩
- 성능 평가를 위해 Evaluate 카테고리의 [Predictions] 위젯을 [Neural Network] 위젯과 [Image Embedding(1)] 위젯에 연결



③ 분류 결과 확인하기

- Evaluate 카테고리의[Predictions] 위 젯을 더블 클릭하면 [그림 6-5]와 같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분류 결과 확인
- 문화재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분 류 결과를 네 가지 색으로 구분하 여 표시한다. '건원릉정자각'은 파 란색, '경원릉'은 빨간색, '아차산삼 충석탑'은 연두색, '현등사삼층석탑' 의 분류 결과는 갈색으로 표시

높은 분류 성능 확인





우리 문화재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문화재를 인식하기 위해서 Neural Network 모델을 이용해 보았다. Orange3에서는 Neural Network라고 표시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미지 인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을 이용한 것이다.

CNN 모델은 Convolution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특징을 찾는 부분과 찾은 이미지의 특징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분류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Orange3는 독특하게도 이미지의 특징을 찾는 위젯과 찾은 이미지의 특징을 이용하여 분류 즉, 인식하는 위젯이 분리되어 있으며 이 위젯들을 연결하여 이미지 인식 모델을 만든다. 이번 활동에서 사용한 [Image Embedding] 위젯으로 이미지의 특징을 찾고, [Neural Network] 위젯으로 이미지를 분류하였다.

이 활동에서는 데이터의 중요성도 알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모델을 사용하여도 문화재이미지를 제대로 모을 수 없으면 제대로 동작하는 모델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문화재를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제대로 만들려면 충분한 문화재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